

민간소장 기록문화유산 보존의 새로운 허브 한국국학진흥원

❖ 박원재 한국국학진흥원 기획홍보실장



한국국학진흥원 개요

연혁과 입지 여건

한국국학진흥원(韓國國學振興院 : Korean Studies Advancement Center, 이하 '국학진흥원')은 국학자료의 수집·보존과 연구 및 보급을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학 전문연구기관이다. 국학자료 가운데 특히 민간에 흩어져 있는 멸실 위기에 직면한 전통기록문화유산을 수집·보존하기 위한 목적에서 설립되었다.

문중이나 서원 등 민간에 소장되어 있는 기록문화재의 열악한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촉발된 국학진흥원 건립운동은 1995년 12월 문화관광부로부터 법인 설립허가를 받음으로써 본격화되었다. 이후 5년 여의 공사 끝에 2001년 4월 본관인 '홍익의 집'을 완공하였고, 같은 해 10월 퇴계 이황(1501~1570) 탄신 500주년을 기념해 경상북도 안동시에서 열린 세계유교문화축제에 맞추어 공식으로 개관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국학진흥원은 안동 시내에서 동북쪽으로 20여km 정도 되는 지점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는 퇴계가 만년에 학문을 연마하고 제자를 가르치던 도산서원(陶山書院)으로 가는 길목에 해당한다.

영남지역은 예로부터 한국에서 유교문화가 가장 온전하게 남아있는 대표적인 문화권으로 손꼽힌다. 이 가운데서도 특히 안동시가 속해 있는 경상북도 북부권은 퇴계학의 본산으로서, 율곡 이이(1536~1584)를 정점으로 하는 기호학파와 함께 조선유학을 양분하였던 영남학파의 근거지라는 문화사적인 중요성을 지니는 지역이다.

이런 까닭에 안동을 중심으로 한 경상북도 북부지방은 한국 뿐만 아니라 세계사적으로도 유교문화의 흔적을 가장 많이 보존하고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국학진흥원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2002년 이후 현재까지 약 10년 동안 모두 33만 여 점을 웃도는 국학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던 데에는 이런 지정학적인 요소도 중요한 역할을 했음은 물론이다. 이런 점에서 국학진흥원은 유교문화를 중심으로 한 국학자료의 수집과 보존이라는 설립취지를 구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에 등지를 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시설안내

국학진흥원은 모두 6개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중심기능에 따라 4개의 건물군으로 다시 나뉜다. 먼저 본관인 <홍익의 집>은 2개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앞동은 지하 1층에 지상 3층 규모이며 뒷동은 지하 1층에 지상 4층의 규모이다. 한국의 전통 건축양식을 살려 지붕을 한옥지붕으로 마감하고 동기와를 올렸으며, 주위를 회랑으로 둘렀다. 주로 연구실과 행정실로 쓰이며, 자료정리실과 도서관 그리고 500여 명 수용 규모의 대회의실과 각종 세미나실 등 연구에 필요한 관련 공간들이 배치되어 있다.



▶ 한국국학진흥원 전경



다음으로, 본관 뒤에 있는 4층 규모의 유교문화박물관은 2006년 6월 개관한 국내 유일의 유교문화 전문박물관이다. 9개의 주제로 구성된 상설전시실과 기획전시실 그리고 각종 최첨단 보존 장비를 갖춘 30만점 수장 규모의 수장고를 갖추고 있다. 이 가운데 수장고는 작년말 국학자료 수집 누계가 수장 한도인 30만점을 초과함으로써 내년말을 완공목표로 현재 확장공사가 진행 중이다.



▶ 유교문화박물관 : 국내 유일의 유교문화 전문박물관이다. ▶ 장판각 : 총 10만장의 목판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이다.

박물관 뒤에는 장판각(藏板閣)이 자리잡고 있다. 국학진흥원이 역점을 두고 수집하고 있는 유교목판을 전문적으로 보관하는 시설이다. 지상 2층 건물 2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습도에 따라 자동으로 개폐되는 전동식 창을 비롯하여 목판 보관에 필수적인 각종 보존 장비들이 갖추어져 있다. 국학진흥원이 추진하고 있는 ‘목판 10만장 수집운동’에 발맞추어 총 10만장의 목판을 수장할 수 있는 규모이다.

국학진흥원의 맨 뒤편에는 전통문화에 기반을 둔 교육연수 시설인 인성연수관과 국학문화회관이 있다. 연수생과 경북 북부권 전통문화 체험을 위해 방문하는 일반인들의 숙소로 사용되는 국학문화회관은 2인실과 5인실, 10인실 등 다양한 규모의 객실이 구비되어 있으며, 총 수용규모는 300명이다.

주요사업 소개

국학자료 수집·보존

국학진흥원이 추진하는 사업은 국학자료 수집을 필두로 자료의 가공과 연구 그리고 보급 등 크게 네 영역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국학자료의 수집과 보존 업무는 국학진흥원의 목적사업일 뿐만 아니라 여타 사업의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핵심적 중요성을 지닌다. 앞서 말한 대로, 국학진흥원이 자리잡고 있는 영남지역은 전통적으로 유교문화가 깊이 뿌리를 내렸던 지역인 까닭에 이와 관련된 기록자료가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데, 고문서와 고서 그리고 이 고서들을 찍어내던 목판(책판)이 주류를 이룬다.

고문서는 이른바 재지사족(在地士族)의 근거지로서 조선조 유교사회를 실질적으로 떠받쳐왔던 향촌사회가 유교적 이념을 어떻게 구현해 왔는가를 보여주는 자료이다. 또한 문집(文集)으로 대표되는 고서는 전통시대 유학적 지식인들의 사유세계를 전달해주는 지식정보의 보고이며, 목판은 그런 지식정보가 실제로 어떻게 유통되고 재생산 되었는가를 말해주는 인쇄문화의 소중한 유산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들 기록문화재들은 근대화과정에서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말았다. 민간에 소장되어 있던 기록문화재들의 상황은 더욱 열악하여 그 보존이 거의 소장자 개인의 손에만 맡겨짐으로써 자연적인 훼손과 도난 등의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어 온 것이 현실이다. 국학진흥원은 개관 이후부터 이런 문제들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줄곧 민간에 흩어져 있는 전통 기록문화유산의 수집과 보존에 모든 힘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지금까지 대략 10년 여 남짓한 기간 동안 모두 33만 여 점을 수집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는 매년 평균 3만 여 점을 상회하는 수치이다.

이 가운데 목판은 국학진흥원이 심혈을 기울여 수집하는 기록문화재로서, 여타의 한국학연구소와 구별되는 국학진흥원만의 자랑이다. 현재 국학진흥원이 소장하고 있는 목판은 모두 62,000여 장에 달하는데, 이는 단일 연구소가 가지고 있는 유교관련 목판으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양이다. 국학진흥원은 이 목판 수집사업을 한층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2020년을 목표로 ‘목판 10만장 수집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이들 목판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도 등재시키기 위한 작업도 활발히 추진 중이다.

국학진흥원이 자료를 수집하는 방식은 구입이 아니라 기탁(寄託)이다. 즉 원소장자의 소유권은 그대로 인정하고 해당 자료만 기탁 받아 그것을 보존처리하고 보관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 역시 국학진흥원이 모두 부담하고 소유자에게는 일체의 경제적 부담을 지우지 않음으로써 민간 소장자들의 기탁 분위기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이는 비록 소유권은 소장자 개인에게 있더라도 문화재적 가치를 고려할 때 이들 자료는 우리 민족 공통의 문화적 자산이라는 인식이 배경에 가로놓여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대신에 국학진흥원은 자료에 대한 학술적인 사용권을 보장받음으로써 이들 자료가 단순한 유물로 박제화되지 않고 한국의 유교문화를 연구하는 학술적인 연구자료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고서, 고문서 등 전적류를 보관하는 수장고 내부 모습

▼ 목판을 보관하고 있는 장판각 내부모습



기탁된 자료 속에는 국보 132호 『징비록』을 비롯하여 보물 610점 등 모두 1,740점의 문화재가 포함되어 있다. 이들 자료 가운데 일부는 유교문화박물관에 전시하여 일반에 공개하고 있으며, 공개되지 않은 자료들도 박물관의 정기 기획전과 기탁문중특별전을 통해 순환 공개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정기 기획전은 도산서당 창건 450주년을 맞아 '경(敬)의 마음으로 사람을 빛다'라는 제목으로 내년 1월까지 열리고, 기탁문중특별전은 한산이씨 소호문중의 자료를 내용으로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개최한 바 있다.

〈국학자료 수집현황(2011. 11월 현재)〉

유형	고서	고문서	목판	현판	서화	기타	계
수량	101,707	165,042	61,709	837	2,748	2,072	334,115

국학자료 가공·활용

국학진흥원은 수집한 자료들을 보존처리를 거쳐 수장시설에 안전하게 보관할 뿐만 아니라 전산화 작업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자료의 영구적인 보존과 자유로운 활용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기록문화재는 자료의 특성상 형태의 온전한 보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그 내용이다. 따라서 기록물의 내용을 영구히 보존하고 그것을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자료의 전산화가 필수적이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국학진흥원은 그동안 소장자료의 전산화 작업에 꾸준히 관심을 기울여왔다.

개원 이후 현재까지 구축된 DB는 문집자료는 1,328종 3,503책이고, 고문서로는 서원과 명문가 소장 고문서 52,483건이며, 일기류 자료가 660종이다. 이들 자료는 국학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유교넷(www.ugyo.net)을 통해 서비스되고 있다.

소장자료의 전산화 작업을 토대로 자료의 내용을 디지털 콘텐츠로 가공하여 보급하는 일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흔히 '문화콘텐츠 개발'이라고 불리는 이 사업은 디지털이라는 새로운 매체 속에 국학을 담아내는 작업이라는 데 그 중요성이 있다. 국학진흥원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문화콘텐츠 개발 사업은 완성형 개발과 소스 개발 두 가지로 추진하고 있는데, 주요 완성형 콘텐츠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이들 콘텐츠는 마찬가지로 유교넷을 통해 일괄 서비스하고 있으며, 개별 사이트를 통한 접근도 가능하다.

〈주요 콘텐츠 소개〉

콘텐츠명	내용	사이트
조선시대 유산기	조선시대 선비들의 산행 문화 콘텐츠	yusan.culturecontent.com
옛문서 생활사 박물관	고문서를 통해 본 선조들의 살아있는 생활 이야기	life.ugyo.net
사행록 역사여행	조선시대 사행 기록을 통해 본 외교와 문물 교류 이야기	saheng.ugyo.net
조선의 교육	전통시대 교육 체계와 특징을 알기 쉽게 풀어 주는 멀티미디어 콘텐츠	edu.ugyo.net
유교의례 아카이브	유교 의례를 가례(관·혼·상·제)를 중심으로 소개하는 아카이브형 콘텐츠	form.ugyo.net

소스 개발은 올해 처음 시작된 사업으로 주로 소장하고 있는 일기류 자료를 바탕으로 스토리텔링 소스를 개발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민간에서 편찬된 일기류는 선현들의 생생한 삶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주는 자료라는 점에서 스토리텔링의 풍부한 보고이다. 올해 처음으로 600건 개발을 목표로 작업을 진행 중인데, 작가와 PD 등 현장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의 관심이 아주 높다.

국학연구

국학진흥원은 국학연구기관으로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 위해 학술연구에도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소장자료를 토대로 하는 학술연구는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진행된다. 국학 관련 각종 학술대회의 개최와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학술교류 그리고 소장자료를 중심으로 한 출판사업이 그것이다. 학술대회의 경우 국학과 관련된 주제를 개발하여 매년 국내외 국제 학술대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국내외 한국학 연구자의 연구의욕을 고취시켜 왔다. 이 가운데 국내학술대회는 한국의 유교문화를 다방면에서 조망함으로써 그 의미를 새롭게 조명해내는 데에 주로 역점을 두어왔고, 국제 학술대회는 국학진흥원이 세계적인 한국학 연구센터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작업으로 국학자료의 발굴과 보급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학술대회의 성과는 국학진흥원이 반년간으로 펴내는 정기 학술지인 《국학연구》(현재 19집 발간)에 대부분 수합되어 그때그때 바로 학계에 보급되고 있다.

이밖에도 국학진흥원은 한국학의 진흥을 위해 국내외 학술교류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한국학 중앙연구원과 한국고전번역원, 국사편찬위원회,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등 국내 유수의 연구기관은 물론 중국 산둥성 공자연구원, 안휘성의 안휘대(安徽大) 휘학연구중심(徽學研究中心), 복건성 송명이학연구중심(宋明理學研究中心), 일본 간사이대, 미국 하와이대 한국학연구소 등과 교류협정을 맺고 활발한 학술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국제학술교류는 안동시의 지원을 받아 '안동학(安東學)'의 정립과 확산이라는 주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이루어지고 있다.



▶ 국학과 관련된 주제를 개발하여 매년 국내외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국학진흥원은 한국학 자료의 학술적인 보급과 한국학의 대중화를 위해 출판사업에도 꾸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까지 발간한 도서는 모두 66종 232책에 이른다. 이 가운데 학술적 가치가 높은 도서를 한두 가지 소개하면, 먼저 '한국국학진흥원 소장자료 영인총서'를 들 수 있다.

소장 자료 가운데 학술적 가치가 높은 것들을 선별하여 해제와 표점작업을 거친 후 발간하는 영인총서로, 현재 모두 9종이 간행되었다.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의 한국의 금석문을 모두 35권에 담아내는 『한국금석문집성』도 눈에 띈다. 한국의 금석문 탁본 가운데 가장 선본으로 꼽히는 청명본(靑溟本)을 저본으로하여, 현재 15권을 간행하였다.

한국의 유학사상을 10개 분야(총론, 철학사상 1·2, 문학사상, 교육사상, 정치사상, 경제사상, 법사상, 사회사상, 종교사상, 예술사상, 과학기술사상)로 나누어 총 12권으로 발간된 『한국유학사상대계』도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국학의 대중화를 위해 전통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서술한 ‘국학교양총서’ 시리즈도 현재까지 모두 11권이 나와 있다.

전통문화 보급 및 활용

국학보급 사업은 교육연수사업이 중심이다. 교육연수사업은 일반인들에게 전통문화에 대한 직접 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민족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려는 취지에서 수행되는 사업이다. 교육연수사업은 크게 국학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전문가 교육과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한 민족문화 전승 및 인성함양 교육 그리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로 나뉜다.

먼저, ‘고전국역자양성과정’으로 불리는 전문가 교육은 전통기록자료를 전문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일반 한문 독해는 물론 초서와 고문서 과정도 두어 국학자료를 온전히 독해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교육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매년 엄격한 테스트를 거쳐 소수의 인원만을 선발하며, 교육 연한은 3년이다. 이 과정은 내년부터 한국국학진흥원 부설 한문교육원으로 이름을 바꾸어 산하에 대구교육센터(경북대와 공동운영)를 두는 등 확대 개편될 예정이다.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한 민족문화 전승 및 인성함양 교육 프로그램은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라 불린다. 일정한 소양을 갖춘 할머니들을 선발하여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게 한 후 거주하는 지역의 유치원 유아들에게 우리 전통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사업이다. 2009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현재 전국적으로 105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300명이 새로 교육을 이수하고 있다. 내년에는 다시 신규로 600명이 양성될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2013년부터는 모두 1,000여 명에 이르는 이야기할머니들이 전국 각지 3,000여 개소의 유치원에서 활동하게 된다.



▶ 민족문화 전승 및 인성함양 교육 프로그램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운영



▶ 유치원을 찾아가 옛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이들 할머니들은 자라나는 미래세대들에게 선현들의 미담을 중심으로 우리 민족의 정서가 배어 있는 이야기들을 들려줌으로써 민족문화의 전승은 물론 유아들의 인성함양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밖에 일반인 교육연수는 공직자와 교사, 대학생,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프로그램은 주로 전통문화와 관련된 강의와 종가와 서원 등 전통문화의 현장을 답사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최근 3년간 이들 프로그램을 이수한 교육생은 공무원과 대학생 등을 비롯하여 모두 12,300여 명에 달한다.

국학자료 허브를 향한 발돋움

국학진흥원은 기존의 한국학연구소들에 비해 그 역사가 일천하다. 그러나 그런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굴지의 한국학연구소 가운데 하나로 착실히 자리잡아가고 있다. 특히 민간소장 국학자료의 수집·보존과 한국유교문화 연구 부문은 입지여건의 상징성이나 소장자료의 성격 등을 감안할 때 이미 독보적인 위치에 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여기다가 유교문화박물관과 인성연수관 등을 통해 전통문화의 보급에도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

이를 계기로 국학진흥원은 국내외의 한국학 연구자들에게 더욱 문호를 개방하고 또 그에 상응하는 다양한 연구 프로그램들을 개발함으로써 한국학 연구의 새로운 연구공간으로서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더욱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자료제공 서비스 프로그램의 개발과 방문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 그리고 이를 통한 다양한 형태의 학술교류 등이 그 구상의 주된 골자들이다.

이와 함께 국학진흥원은 향후 기관의 역량을 한국유교문화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와 한국학의 디지털화 그리고 사업성과의 활용·보급에 집중시키려고 계획하고 있다. 첫 번째 과제가 여타의 한국학연구소와의 차별화 전략이라면 두 번째 과제는 시대적 조류와 함께 호흡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며, 마지막 세 번째 과제는 앞의 두 가지를 통한 민족문화 계승 노력의 일환이다. 이런 목표를 실현해가는 과정에서 국학진흥원은 국내외의 유관 기관과 관련 연구자들과의 교류를 꾸준히 실천함으로써 한국적 특수성과 세계적 보편성을 함께 갖춘 한국학연구원으로서의 위상을 한층 다져나갈 예정이다. **IN**

필자 소개

고려대학교 철학과 및 같은 학교 대학원을 졸업하였다(철학박사). 한국국학진흥원 유교문화박물관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국학진흥원 수석연구위원으로 기획홍보실장을 맡고 있다. 주요 논저로는 『유학은 어떻게 현실과 만났는가, 『철학, 죽음을 말하다』 등 다수 이다.



평범한 사람들의 특별한 기록을 보존하는 한국족보박물관

❖ 심민호 한국족보박물관 학예연구사



한 나라의 역사는 기록으로 남는다. 국가의 흥망성쇠를 기록한 것이 역사서다. 『삼국사기』,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등은 공적인 영역에서 남긴 역사기록이다. 야사(野史)라 불리는 사적인 역사 기술은 공적인 역사기록의 빈 틈을 채워준다. 그리고 몇 몇 위인에 의한 역사의 부침을 기록한 것이 공적 영역의 역사서라 한다면, 역사에 이름을 남기지 못 한 채 이 땅에 살다간 사람들의 기록이 족보에 담겨있다.

한국인이면 꼭 한 번 다녀가야 할 곳

● ●
학생들의 체험학습철 외에도 하루 수 천명의 관람객이 다녀가는 박물관은 흔치 않다. 우리나라 최고 박물관인 국립중앙박물관의 평일 하루 관람객 수가 1만 명이 안되고, 인근 지역의 국립박물관도 하루 평균 1,000명 내외가 찾는다. 이에 비하면 한국족보박물관은 평일 하루 3,000명, 주말과 휴일에는 5,000여 명이 찾으니 웬만한 국립박물관보다 관람객이 많다. 체험학습과 봄 가을 나들이철이면 유등천변 하상주차장에는 타 지역에서 온 대형버스들이 즐비하고 하루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족보박물관을 방문해 줄을 서서 전시를

관람하는 진풍경이 벌어진다. 인구 26만의 작은 지방자치단체인 대전광역시 중구에서 운영하는 한국족보박물관과 뿌리공원에는 연간 110만명이 방문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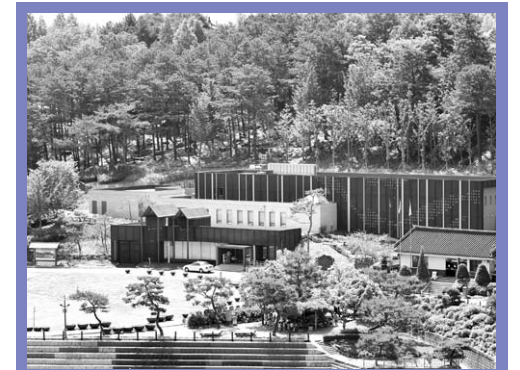
65세 이상 노인 관람객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한국족보박물관과 뿌리공원은 한국인이란 죽기 전에 한번쯤 꼭 방문해야 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어, 문중 행사나 효도 관광과 병행하여 단체 관람을 하게 된다. 또 가문의 역사를 공부하고 전승하기 위해 할아버지와 손자가 함께 방문하는 곳이기도 하다. 3대가 함께 하는 박물관이자 평생에 꼭 한 번 방문해야 할 곳으로 알려진 한국족보박물관은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에 위치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조각공원 건립이 유행처럼 퍼지기 시작하던 무렵 대전 중구에서는 민관이 함께 하는 가족공원을 조성하고자 했다. 그래서 한국인의 성씨와 가문을 주제로 하여 공원 조성은 중구청에서 담당하고 성씨 유래비는 문중에서 제작하는 민관합작 공원이 탄생하게 되었다. 1997년 11월 뿌리공원 개장 당시 72개 문중이 참여하여 조성된 공원은 2008년 11월 64개 성씨가 추가로 참여하여 현재 136개 성씨의 유래비가 조성되어 있다. 뿌리공원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2011년 11월말 현재 155개 문중이 성씨 유래비를 추가로 건립하고자 추진 중에 있다. 넓은 잔디광장에 문중별로 특색 있게 조성된 136개의 성씨 유래비에는 시조를 비롯한 문중의 유래, 문중 대표인물, 후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등이 담겨 있어 아이들을 데리고 온 학부모들에게는 최고의 체험학습장이다.

한국족보박물관은 2010년 4월 17일 대전광역시 중구 침산동에 개관하였다. 성씨의 유래를 찾아볼 수 있는 뿌리공원에 위치하고 있어 박물관에서 자신의 성씨와 족보를 공부한 후 뿌리공원에 있는 관련 성씨조형물을 찾아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한국족보박물관은 조상들의 족보문화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소개하고 있다.

한국인의 족보 문화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박물관

● ●
보학(譜學)이 정규 교육 과정에 해당하는 학술연구의 한 분야로 분류되어 체계적인 학문으로 정립되기 보다는 양반 집안에서 대를 이어 책상물림으로 배운 가학으로서 재야학문의 성격이 강하다. 그러다 보니 박물관 전시는 족보라는 책을 소개하는 개론서를 집필하듯 구성하였다. 족보의 체제를 전시하는 제1전시실에서는 박물관의 주요 유물인 족보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 한국족보박물관 전경



▶ 성씨 유래비 : 뿌리공원 내에는 현재 136개 성씨의 유래비가 조성되어 있다.



설명하고 있다. 족보에서 다루는 씨족의 개념에서 족보라고 불리는 책을 구성하는 요소를 나열 전시하고 있다. 족보에 기록되는 가장 첫 번째 이름이라 할 수 있는 시조를 족보에서 기억하는 특별한 방식을 보여주는 것에서 전시는 시작한다.

그리고 실례로 가락국기와 제주지를 전시하여 신화화된 조상의 이야기와 신성한 나의 뿌리에 대해 생각해 보는 전시를 만들었다. 신화시대를 지나 제도적으로 성을 사성(賜姓)하거나 본관을 만들고 바꾸는 사회상을 경주김씨와 안동권씨·곡부공씨의 족보를 통해 보여 주었다. 다음으로 책으로서의 족보가 가지는 편집체제를 보여주는 전시가 이어진다. 서문과 발문, 기 또는 지, 편수자 명기, 도표, 향렬표 등 족보에 담기는 여러 항목을 교과서의 목차를 풀어 보이듯 항목별로 전시했다. 이를 통해 시대적으로 달라지는 서문과 범례의 모습도 볼 수 있고, 한자만 가득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족보에서 그림과 표를 찾아 볼 수도 있도록 구성했다. 전시실의 마지막 부분은 족보에 개인이 어떻게 기록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조선 중기 문인이었던 사암 박순(1523~1589)과 대동법을 시행한 김육(1580~1658)의 기사를 항목별로 정리해 보여 주었다.

제2전시실에서는 족보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전시하고 있다. 간행이라고 하면 인쇄를 연상하기 쉽다. 인쇄가 유형물로서의 책을 만드는 과정이라면 족보박물관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족보의 내용을 만드는 사람들의 행위가 담긴 과정을 중심으로 한다. 전시실 중앙에는 파보소(波譜所)를 중심으로 역사에 기록되지 않았던 개인의 소소한 일생과 개인의 일상사를 기록하기 위해 바쁘게 통문을 전달하는 사람들을 닮은 인형으로 연출했다. 쇼케이스에는 족보를 편찬한다는 신문 광고에서 한 집안의 족보가 간행되기까지 수집해야 하는 수단(收單)과 족보 초고, 교정본들이 전시되어 있다. 책이 간행되면 불필요한 자료로 인식되어 파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에 수집에 어려움이 많았다. 다행히 양주조씨 대종회의 조원환 회장이 1976년부터 1980년까지 대동보 간행을 추진하면서 모아두었던 모든 수단 자료를 30년 간 보관해 오다 박물관 건립시 기증해 2전시실 기획이 가능했다. 전시기획 직후 (구)안동김씨 대종회에서 1978년 족보 간행 준비시에 발행했던 영수증과 인구조사표, 수단 등을 기증하여 보다 풍성한 전시 연출이 가능했다. 현재 장수황씨 문중에서는 우리 박물관의 전시를 관람한 뒤 2전시실에 간행 자료를 기증하기 위해 편수위원 회의록, 회의 장면 사진 등 족보 간행과 관련된 자료를 정리하며 족보 간행을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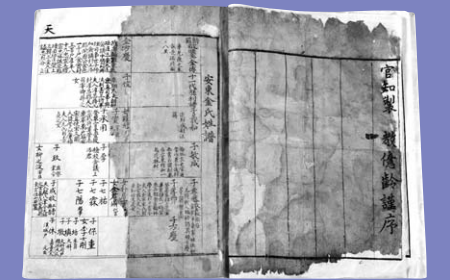
족보의 역사를 전시하는 제3전시실에는 최초의 가계기록이라 할 수 있는 광개토태왕비를 비롯하여, 현대에 제작된 전자 매체 족보까지 족보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보여준다. 시대의 흐름을 따라 거대한 연표와 함께 시대별 족보를 전시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족보 이전의 가계기록이라 할 수 있는 비·묘지·『삼국유사』는 복제품으로 전시할 수밖에 없었다. 이미 상고대의 유물은 기존 박물관과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기 때문에 후발 박물관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조선 초기 이전의 가계기록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워 고민하던 중에 (구)안동김씨 문중에서 충렬공 김방경 장군의 묘지와 문영공 김순의 묘지를 복제형태로 기증하여 전시가 무난하게 이루어졌다.

전시품에 있어서 최초 혹은 최고의 수식어는 박물관의 대외적 위상을 정립해 주는 자존심 같은 어휘다. 현대적 의미의 책 형태를 지닌 최초의 족보는 『안동권씨 성화보』이다. 그리고 15세기의 대표적인 족보로는 『문화류씨 가정보』가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두 족보 모두 타기관에서 소장하고 있어 원본 전시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 시기의 유물은 족보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했다. 족보박물관 건립을 하늘에서 도우신 것처럼 (구)안동김씨 문중에서 1580년 간행한 『안동김씨 성보(경진보)』를 기탁 형식으로 대여하여 전시할 수 있었다. 결국 일반인이 볼 수 있는 최고 오래된 원본 족보는 고려시대 김방경 장군을 시조로 하는 『안동김씨 경진보』이다. 그리고 1600년대의 족보는 원본을 구할 수 없었다. 1700년대의 족보는 양주조씨·문화류씨·함양여씨·경주김씨·안동권씨·곡부공씨·공주이씨·단양우씨 문중의 기증으로 3전시실 외에도 전시실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도록 전시하였다. 한말·일제강점기 족보와 최근 새롭게 등장한 CD족보까지 전시하여 시대에 따른 족보의 변천사를 연표와 함께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사실 3전시실은 연표 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른 박물관과는 달리 입체적으로 구성된 연표를 역사의 오솔길을 산책하듯이 돌아 볼 수 있도록 구성하여 지루함을 덜어내고자 하였다.

족보의 다양한 모습을 전시하는 제4전시실에는 왕실의 족보와 사가의 족보, 특수한 족보로 나누어 전시하고 있다. 왕실족보 중 선원세계류는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었으나, 왕이 직접 보던 어람본이나 국가에서 직접 편찬한 족보는 시중에서 구할 수 없어 왕실도서 자료인 장서각 소장 족보를 촬영하여 재현품으로 전시하고 있다. 사가의 족보는 평소 보기 어려웠던 자료를 다채롭게 전시하여 관람객이 족보의 다양한 세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손바닥보다 작은 휴대용 족보에서 키보다 더 큰 비석족보·돌족보 등 형태적인 다양성과 외보·인아보·팔고조 등 내용적인 다양성을 모두 볼 수 있도록 전시하였다. 특히 충남 홍성군의 지정 문화재인 연산서씨 석보는 우리나라에서 유사한 사례가 단 1건도 발견되지 않았을 만큼 특별한 사례로 그동안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았던 자료다. 또 만성보·문보·무보 등 팔세보류를 전시하여 조선 후기 족보문화 난숙기의 모습을 느끼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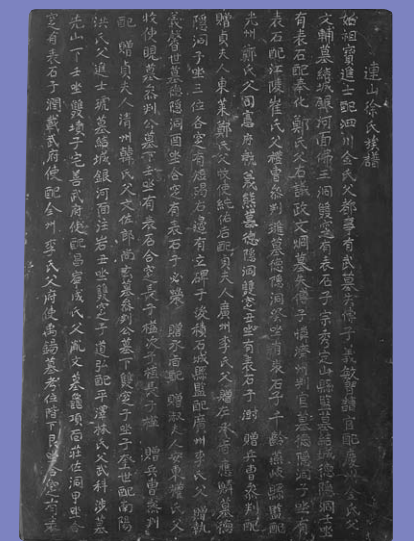
제5전시실은 자신의 뿌리를 돌아보고 전통문화를 몸으로 느낄 수 있는 효 체험 중심의 전시장으로 뿌리공원과 연계하여 성씨유래비를 찾아 볼 수 있도록 전시하고 있다.



▶ 『안동김씨 성보(경진보)』(1580년)



▶ 『무보』: 무과합격자의 명단과 조상을 기록한 족보로 이순신 장군의 이름이 보인다.



▶ 『연산서씨 석보』(1853년)



▶ 족보박물관 내부 전경



3전시실
족보의 역사

족보의 고향 대전

한국족보박물관을 찾는 많은 이들이 전국 최대의 족보 출판사인 회상사를 떠올린다. 향간에는 회상사에서 족보 박물관을 지었다거나 회상사의 자료를 가져와서 전시를 했다는 근거없는 소문도 있다. 박물관에서 다루고자 하는 우리 조상들의 족보문화와 현재 족보문화의 원형을 살펴보기 위한 자료는 현대에 출판되지 않는 고문서류다. 그런데 이러한 소문이 떠도는 것을 보면 족보가 박물관 유물로서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는 대상으로 인식되기 보다는 우리 가문의 영광을 기록한 책으로 인식하는 것이 더 크기 때문일 것이다.

현대인에게 족보하면 대전을 떠올리게 된 것은 회상사의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회상사와 같은 족보전문 출판사가 대전에 터를 잡을 수 있게 된 역사·문화적 배경을 이해한다면 한국족보박물관이 대전에 위치할 수 밖에 없는 역사적 당위성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전주가 고소설을 많이 발행했다면, 회덕·공주·옥천 등지에서는 족보 간행을 많이 했다. 물론 안동·순창·경주 등 전국적으로 족보 간행이 많았으나 충청지역의 족보 간행지가 많이 보이고 있다. 또 화재로 인한 손실을 우려하여 특별한 방식으로 족보를 보관한 사례가 충청지역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다. 충청남도 보령군 청소면에는 광산김씨 문중에서 족보를 보관하기 위해 함을 판 상석(床石)이 있고, 충청북도 보은군 마로면 관기리 고봉정사에는 능성구씨 문중이 족보 판각을 영구히 보관하기 위해 1640년에 화강암을 깎아 만든 '능성구씨 보갑'(충북 민속자료 제11호)이 있다. 대전 계족산 자락에는 고성이씨 문중이 족보를 보관하기 위해 만든 바위굴이 있으며, 충남 논산시 노성면 호암리에는 고령김씨 송암공파의 족보가 새겨진 김임 선생의 신도비(충남문화재자료 제363호)가 전하고 있다. 또한 충청남도 홍성군 구항면 지정리 산에는 1853년 연산서씨 문중이 오석에 새긴 족보, 즉 석보(石譜, 충남문화재자료 제354호)를 숨겨 보관하던 바위

가 있다. 이처럼 충청지역은 다양한 족보 문화와 족보를 보관하던 유적이 많아 한국 족보문화의 본향이라 할 수 있다. 옛부터 호남은 음식치레, 영남은 집치레를 좋아한다고 했다. 그리고 충청도는 묘치레를 한다는 말이 있다. 묘치레라는 것이 조상을 기억하는 또 하나의 방식이라면, 조상을 섬기고 기록하는 족보문화가 충청지역에서 발달한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게다가 송조(崇祖)사상이 무너지가는 현대 사회에 효전승 교육을 위한 효 테마 공원인 뿌리공원이 전국 최초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충청지역은 한국인의 족보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경주해 온 곳으로, 미래 한국의 족보문화 전승을 위해 뿌리공원 내에 족보 전문 박물관이 건립된 것은 역사적 당위성이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현대인에게 전하는 족보의 메시지

한국족보박물관의 관람객 중 일부는 박물관 전시에 깜짝 놀라고 간다. 대부분 'ㄱ'으로 시작해서 'ㅎ'까지의 성씨의 족보를 순차적으로 나열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방문을 한다. 그리고 자기 문중의 족보가 더 많은 쇼케이스를 차지하고 더 잘 보이는 자리에 전시되어 있기를 원한다. 그러나 4,179개 문중의 모든 족보자료를 빠짐없이 수집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그 모든 성씨가 역사적으로 족보를 모두 간행한 것도 아니다. 또 자료를 모두 수집했다 하더라도 전시 기법상 의미 없는 나열은 박물관 전시가 아닌 중소기업 상품 판매 증진을 위한 전시회처럼 된다. 그리고 그 모든 성씨의 족보에서 표지만 나열해 전시 하더라도 1,300m나 되는 쇼케이스가 필요하다. 모든 성씨의 족보를 한눈에 보여준다는 것은 사실상 구현이 어려운 전시다.

박물관을 만들 때는 관람객의 욕구를 반영해 전시하는 것이 보다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개별 문중의 세력 과시장이 된다면 박물관 전시가 지향해야 하는 교육성이 훼손된다.

또 역사를 과시의 도구로 삼게 되는 병폐를 낳을 것이 자명하다. 때문에 전시 기획에 있어 성씨보다는 유물로서의 족보에 집중을 했고, 족보 그 자체의 다양한 모습과 유물이 가지는 스펙트럼을 하나씩 보여주는 데 전시의 주안점을 두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4개의 역사적 주제와 1개의 교육적 주제를 가지고 5개 전시실이 구성된 것이다.

한국족보박물관에서 유물로서의 족보에 주제를 집중하고 보니, 문중 과시로 인한 사회 분열이라는 족보의 부정적 이미지 보다는 화합과 공존이라는 초기 족보의 정신이 부각되었다. 초기 족보를 살펴보면 본래 성씨만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안과 관련된 모든 성씨를 기록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외손과 사위, 장인의 이름이 본성씨보다 더 많은 것이 초기 족보의 모습이였다. 『충주박씨내외자손보』나 『안동권씨 성화보』, 『문화류씨 가정보』가 이에 해당한다. 또 『고성이씨 선세외가족보』의 경우 시집은 할머니의 가계를 정리해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족보를 보면 나오는 다른 성씨를 가진 모든 사람이 어느 대에 이르러서는 나와 피를 나는 가족임을 생각하게 된다.

『팔고조도』는 패밀리트리 형식으로 나로부터 고조대까지의 모든 부모를 기록하고 있다. 나로부터 아버지와 어머니, 할아버지와 할머니,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 증조부 4분과 증조모 4분, 고조부 8분과 고조모 8분을 기록한다. 표의 최상단에 고조부 8분의 이름이 적힌다고 해서 팔고조도로 불리는 이 족보를 살펴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성씨에서 피의 지분은 아주 미미할 정도로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6개의 성씨가 모여 나의 고조가 되고, 8개의 성씨가 모여 증조가 되고, 4개의 성씨가 모여 조부모가 된다. 그리고 2개의 성씨가 모여 부모를 이루고 내가 태어난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내가 어느 집안의 자손이라며 족보를 자랑하는 것이 부끄러워진다. 나는 27개의 다른 성씨가 모여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중에서 내가 가진 성씨는 4번 반복될 뿐이다.

나와 다른 사람이 모두 한 가족이고, 혼인관계 외손관계로 펼쳐졌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요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집단 따돌림과 같은 문제를 예방할 수도 있다. 내가 족을 소중히 하듯 친구도 가족처럼 소중히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 점점 핵가족화로 가까운 친척이 사라지며 외로운 개인으로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우리 사회는 한 가족 공동체라는 따뜻함으로 존재하게 될 것이다. 한국족보박물관을 방문하고 전시를 관람한 관람객에게 족보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를 만들어 파편화되고 삭막한 현대에 따뜻한 사랑의 씨앗을 심는 것이 공자가 말한 유교의 기본 철학인 인(仁)을 실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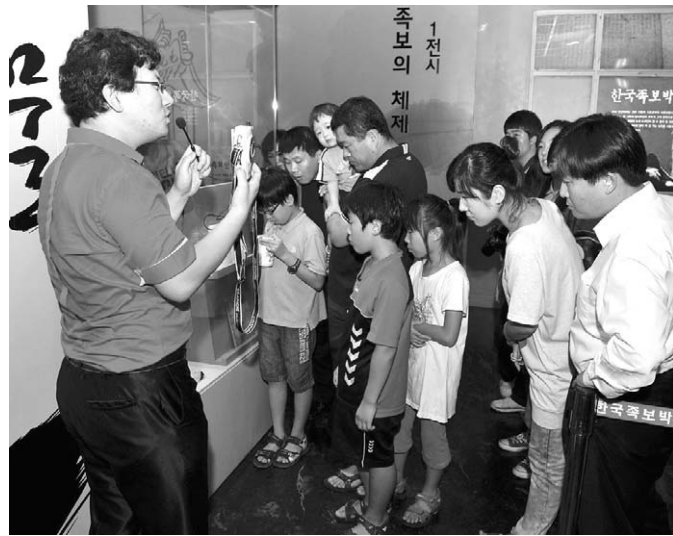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개인의 삶에 성찰과 수양의 시간을 제공하는 전시공간이다. 박물관의 첫 발간 도서 제목을 『평범한 사람들의 특별한 기록』으로 정했듯이 역사에 기록하기에는 너무 많은 이름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정리한 족보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특이한 문화현상이다.

전쟁영웅, 정치지도자의 이름만이 남게 되는 공적인 역사기술에 포함되지 못했던 우리 조상은 실제로 존재했고, 이 땅에 살다간 수많은 조상들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내가 있고 국가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이다. 공식적인 역사 기록에서 찾을 수 없는 평범한 삶을 살다간 사람들이 있었기에 역사의 거대한 흐름이 있었던 것인데 현실적으로 그 많은 이름을 기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 어린이 대상 교육프로그램



▶ 한국족보박물관을 찾은 가족 단위 관람객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족보를 만들고 그 평범했던 이름들을 특별하게 기록하고 전승했다. 이는 사마천이 『사기』를 편찬하면서 ‘열전’을 만들어 개인에게 역사의 책임을 지우고, 역사의 주체로서 살도록 독려했던 정신을 나와 모든 후손에게 확장한 것이다.

다시 말해 『대학』에서 말한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를 족보를 통해 체계적인 실천으로 규정한 것이다. 족보에는 적게는 3~4가지 개인의 정보에서 많게는 80여 가지의 전기사항이 기록된다. 오늘 내가 살아간 삶을 족보를 통해 내 손자가 볼 것이고 후손들이 볼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흐트러지고 헛된 삶을 살 수 없을 것이다. 개인을 바로 세우는 것에서 사회와 국가가 바로 설 수 있다는 유교의 정신이 족보를 통해 개인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관람객이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전시 관람을 마칠 즈음 지나온 전시실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전망대를 전시실 내부에 만들었다.

처음에 박물관을 입장 할 때 우리 집안의 족보가 얼마나 멋있게 전시되었는지를 찾고자 했던 관람객이 나를 돌아보고 타인과의 관계를 다시금 정립하는 인격의 성숙이 바로 족보박물관 전시 기획과 연출 의도이다. 이 땅을 살다간 수많은 평범한 이름이 족보에 남아 특별해 졌듯이,

오늘 하루를 평범하게 사는 것이 미래 한국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특별한 삶을 족보는 말해주고 있다.

세계와 소통하는 박물관

족보를 비롯한 가계(家系) 기록은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로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성경에서 예수의 계보가 등장하고 유태인들은 혈통을 중요시 했다. 또 중국의 족보를 모방해 만든 것이 우리나라의 족보라고 본다면 가계 기록 문화는 세계 보편 문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이 남겨준 족보가 소중한 이유는 그 수록 범위에 있다. 왕족이나 특별한 혈통을 기록한 것이 아닌 양반, 중인, 양인까지도 족보에 기록이 되었다. 물론 양반의 인명을 기록하는 것이 원칙이나 후대로 내려올수록 그 수록 범위가 광범위해졌다. 특별한 업적이 없어도 한국인의 족보에는 그 기록을 남길 수 있다. 서양의 족보가 직계 조상 혹은 특정 가문의 역사 인물을 기록한다면 우리의 족보는 기록의 범위가 넓다고 할 수 있다. 역사의 뒤안길에 잊혀져간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기록된 것이 한국인의 족보이고, 역사를 만들고 지탱해온 무명의 선조들이 기록된 것이 우리 조상의 족보이다.

한국족보박물관은 그동안 사가의 기록 영역에 남아있어 중앙에서 관리되지 못했던 족보를 한 자리에 모아 연구하고 전시 할 수 있게 구성된 국내 최초의 족보 전문 박물관이다. 세계사적인 측면에서 한국 족보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유일한 기관으로 세계인의 인정을 받아 개관 1년 만에 국제비즈니스대상(International Business Awards) 2개 부문 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한국족보박물관은 족보문화를 집대성해 체계화한 박물관을 건립하고 그 과정을 소개하는 도록 『다시 처음으로』를 발간해 올해의 기관상(Company of the Year-Hospitality & Leisure)과 『평범한 사람들의 특별한 기록』을 발간해 세계인에게 한국의 족보 문화를 소개한 공로를 인정받아 새로운 분야에 도전한 올해의 신생 기관상(Best New Product or Service of the Year - Other)을 수상했다. 한국족보박물관에 소장된 가문의 역사 기록은 도전과 응전의 역사에서 개인의 일상으로, 거대 담론에서 미시사로의 패러다임의 전환기에 세계인과 소통하는 휴머니티가 풍부한 세계의 기록 문화 유산으로 인정받게 될 것이다.

한국족보박물관을 찾아서

한국족보박물관은 대전시민보다 외지 관람객이 많기로 유명한데 여기에는 고속도로와 인접한 편리한 교통여건이 한 몫 한다. 대전시 중구 침산동에 있는 한국족보박물관은 경부고속도로 비룡분기점에서 대전남부순환도로를 타고 안영IC로 들어와 시내방향으로 1km만 가면 된다. 톨게이트에서 5분 거리인데다 주차비와 입장료가 없어 학생과 가족단위 관람객도 많이 찾는다.

박물관은 매주 월요일·설·추석 당일은 휴관이며, 오전 10시에 개관하여 오후 5시 30분 까지 관람이 가능하다(동절기는 오후 5시 폐관). 뿌리공원은 연중무휴로 운영되고 있으며, 오전 6시에 개장하여 오후 10시에 폐장한다. **IN**

필자 소개

충남대학교에서 고전문학(국문학)을 전공하고, K-Water 대청댐 물 문화관, 태영민속박물관 학예연구사, 충청문화연구소 전임연구원 등을 역임하였다. 현재 한국족보박물관 학예연구사로 재직 중이다.



▶ 국제비즈니스대상(IBA) 수상 : 마이클 갤러허 IBA회장과 오석주 효문화마을관리원장



▶ 학생은 물론 외국인 등 다양한 연령층이 족보 박물관을 찾고 있다.

